

도서관에 바란다

철학과 조교 이한구

대학 졸업후 약 3년 동안을 도서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서관에 바라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한 감이 들기도 한다. 이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무엇을 더 바란다는 말인가? 결국 예산의 부족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태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육의 목적이 교과서적 지식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진리탐구에 있는 것이라면, 이를 뒷바침해주는 것은 도서관뿐임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학의 수준은 그 대학에 속해 있는 도서관의 조직·운영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평가된다. 서울대학교의 부속도서관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은 여러사람들에 의해서 누누히 지적되어 왔고, 이런 지적의 결론은 항상 도서관예산의 부족으로 귀착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의 부족때문에 연유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예산의 부족이 물론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주어진 예산마저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는 항상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의 팽창자체가 효율적인 계획과 활동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충하라는 도서관 외적인 요구가 아니라(이것은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에서 이미 밝혀졌으므로) 매일매일의 도서관 이용에서 느끼는 몇가지 사소한 점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도서구입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서울대학교 장서가 80여만권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숫자였으며 국내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볼 때도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일, 이년 지나면서 이 숫자가 가리키는 허구성을 절감하고야 말았다. 도대체

그 많은 책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얼마전에도 논문관계로 2,3개월 계속해서 도서관에 출입한 적이 있어 더욱 절실히 깨달은 바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60여만권의 장서 운운하는 부속 도서관에 철학분야에 불만한 책 2,3백이 없다면 이를 듣는 사람은 누구라도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70년도말 도서관 통계에 나와 있기도는 해방후 수입된 책중에서 철학분야가 2,734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인 즉 동양서가 1,821권이고 서양서가 913권인데 이중에서 반수이상이 수증도서라 불만한 책은 몇권 안된다는 결론이다. 물론 수증도서라고 해서 모두 불필요한 책들은 아니지만 폐품이 더 많은 것 같다. 수증도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입의 경우 적은 예산일 때정 효율적으로 책을 구입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도시 필요없는 책들이 많고 그 대신 고전으로 인정된 필요한 책들이 없다.

도서관은 낡은 쓰레기 창고가 아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도서관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도서를 폐기처분하는 일일 것이다. 미국 도서관협회 잡지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미국 어느 대학의 경우 10년마다 계속해서 도서를 폐기처분한다고 한다. 새로운 이론이 계속 나오고 옛날의 이론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도서는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연구에 유용하다. 나의 전공분야에서 유추해 보건대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도서폐기처분과 아울러 도서구입에 있어서 기존의 도서선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든지 도서선정을 각과로 의탁하든지 하여 서점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목록에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인 태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한권씩 구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필요한 고전의 경우는 대략 10권이나 20권씩 같이 구입해서 여러사람이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예산의 관계도 있겠지만 꼭 한권씩만 구입하는 경우 한 사람이 대출해 간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접하게 되는 데는 몇개월이 걸리는 예가 허다하다.

둘째로 소위 귀중서 개방을 원하고 싶다. 우리 도서관에는 「일사문고」, 「가람문고」등 몇 가지의 귀중서가 있다. 그리고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등도 귀중서로 취급하여 대출하기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있다. 도서관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일사문고」·「가람문고」등은 전문가에게만 대출하라는 기증자의 부탁때문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학생들이 열람조차 할 수 없는 책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한권씩 밖에 없는 귀중서이기 때문에 분실을 두려워해서 열람시킬 수 없으며 대출도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증자의 부탁도 부탁이겠지만 그것만 고수하다 보면 결국 책은 사장되고 만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사문고」·「가람문고」에 있는 책을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 가서 빌려 보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도서관은 책을 저장해서 썩히는 곳이란 말인가.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는 식이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도 마음대로 못본다니 이런 사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한권씩 밖에 없다는 이유라지만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논문을 취급하는데 대학원과 절충만 한다면 이런 논문들은 10권씩이라도 가져다 놓을 수 있다. 꼭 한권씩만 가져다 놓고 귀중서에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려니와, 요즘같이 프린트다 공판타자기다하여 인쇄하기 쉬운 세상에 석사학위논문 따위를 귀중서 취급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

또 잡지만 해도 그렇다. 잡지라고 해도 해방후의 것은 별것이 없는 실정이다. 해방후 근 30년에 가까운 세월에 도서관의 수입도서가 10만권 안팎인 실정을 비추어보면 불문가지의 일이다. 서양서의 경우 해방전 약 20년간의 잡지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어서 가끔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나마 보기 어렵다. 내가 도서관에 있을 때 잡지만 보관해 둔 제본실 이층에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책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었고, 대다수의 잡지는 제본후 거의 한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를 귀중서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귀중서의 경우는 규장각도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규장각도서의 말만 들었지 4년동안 거의 구경도 한번 못하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도

서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 내용은 커녕 표지구경도 제대로 못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물론 교수도장만 있으면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에겐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규장각 도서중에서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도서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요즘같이 흔한 Xerox를 한다든가 해서 처리한다면 개방못할 귀중서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귀중서가 지닌 의미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읽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셋째로 잡지구입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잡지가 연간 수십만종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의 잡지구입은 참으로 빈약하다. 도서관 통계자료에는 그래도 몇백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잡지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아니한다. 가끔 참고 열람실에 들려보면 10여종에 불과한 국내잡지가 몇달을 두고 계속 꽂혀있다. 이것도 태반이 학술잡지도 아닌 것들이다. 예를 들어 얼마전 까지만 해도 3종류가 들어오던 철학잡지가 요즘은 한권도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잡지가 열람실에 열람되지도 않고 바로 제본소로 가서 몇달이 지난 후에야 서고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을 다투는 마당에 너무나 안일한 처리다. 학술잡지의 경우는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잡지의 생명은 결국 시사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잡지의 경우는 도서관에서 활동만 활발히 한다면 외국도서관과 상당히 많은 양을 교환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흔히 잡지가 제본되어 서고에 들어와 있을 때도 목록카드에 기록이 안되었을 경우가 있다. 이런 때도 책은 결국 사장되고 만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여러가지가 궁극적으로 예산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겠지만, 예산이 확충된다 해서 해결될 문제점만도 아니다.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위의 무관심과 박봉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 열거한 여러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